

## 학교가는 길은 자연학습장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은 자연학습장이다. 교회처마 밑에는 찌르레기의 둥지가 있다.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논과 밭 사이로 할미새들의 날렵한 날개 짓을 볼 수가 있다. 꼬리를 위로 아래로 흔들며 나선형의 곡선을 그으며 나는 그 모습은 감탄할 만 하다.

논에는 눈부시게 하얀 멧쟁이 새가 우아한 자태로 조심스레 거닐고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무아지경에 빠질 듯한 심오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논을 벗어나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을 만난다. 아침마다 그곳을 지나며 항상 아이들이 확인하는 것이 있다. “아빠 오늘은 원앙이가 안보여”, “어 저기 원앙새 한 쌍이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오월쯤 되면 원앙이 한두 쌍이 이 시냇가로 날아든다. 천연기념물이기에 더 관심을 갖고 아침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다.

원앙이가 노는 장소에서 조금위로 가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보’가 있는데 그곳은 들오리들의 좋은 먹이 공급처이며 수영장이 되는 곳이다. 가끔은 물총새도 들러 물고기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곳은 동물원에 가지 않아도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희귀새가 되어 버린 제비가 등교 길 앞을 힘차게 비상(飛上)한다. 아이들의 눈은 하늘을 향한다. 그 누구의 모습을 응시하듯 말이다.